“정전협정 70년을 되돌아보며”

Ruminating 70 years of the Korean War Armistic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제20기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동남아 남부협의회 / 동남아 서부협의회 / 동남아 북부협의회
서남아 협의회 / 베트남 협의회 / 호주 협의회 / 뉴질랜드 협의회

정전 70년을 함께한
아태지역 참전국

부의장 이숙진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는 각 협의회 차원의 공공통일외교 역량 증진을 위한 개별 활동과 더불어, 공동 협력사업으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각국 참전용사의 기록물 제작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세계 각국의 전후 세대들에게 바라는 소망을 그들의 육성으로 기록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싸운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참전용사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에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 한국인들보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층 더 경외감 혹은 자긍심을 지니는 것 같다"는 참전용사의 지적에는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노력 속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엽적 흠결에 매몰되지 말고 거시적 관점으로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해야 한다" , "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는 이들의 조언 역시 뇌리에 강하게 남습니다.

또한 "한국전에 참전한 것을 일평생의 명예로 생각했던 아버지를 추모해준 것에 감사하다"는 '호주 UDT 전설'의 유족이 보내온 감사인사는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무튼 정전협정 70주년을 계기로 향후 해외민주평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 공동사업이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태지역회의는 20기의 마지막 프로젝트로 '1953년 7월 호주가 바라본 한국전쟁 정전협정'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호주 언론 매체와 학자들의 시각을 분석해 정전협정의 역사적, 지정학적, 외교적 의미를 좀더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함이며, 향후 구성될 21기에서도 더욱 폭넓은 연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해외민주평통의 전문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8기에 처음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당시 아세안지역회의)의 부의장을 맡으면서 동료 위원들 모두께 "우리가 해외평통위원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각자의 소신이나 이념 혹은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고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구축에 일조하기 위함"이라고 누차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바람직한 애국의 자세이고, 해외 민주평통위원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민주평통의 전문성, 대표성, 다양성이 더욱 구체화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부의장 이숙진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18, 19, 20기)

Australian perspectives in July 1953 on the Korean War Armistice

1953년 7월, 호주가 바라본 한국전쟁 정전협정

/ 04 "한국전쟁, 극적인 휴전협정 초읽기"
1953년 7월 20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 05 "현실로 다가온 한국전쟁 휴전"
1953년 7월 27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 06 "정전 소식에 환호하는 참전용사들…"
1953년 7월 27일 더 선

/ 07 "정전협정은 자유세계의 단합된 의지의 기념비"
1953년 7월 28일 더 선

/ 08 "한국전쟁 희생, 헛되지 않았다"
1953년 7월 28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 09 "호주, 한반도 평화회의(제네바 회담)에 참여해야"
1953년 7월 30일 더 선

/ 10 "휴전, 평화의 승리…아이젠하워드 대통령의 결단력"
1953년 7월 30일 디 아거스

/ 11 1953년 8월 2일 일요일:
호주 전역의 교회들 한국전쟁 휴전 감사 예배
1953년 8월 1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 12 "정전협정, 이념적 잣대가 아닌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스튜어트 메이어 전 유엔사 부사령관, 호주 해군제독

1953년 7월 20일, 월요일
Monday, July 20, 1953

한국전쟁, 극적인 휴전협정 초읽기

DRAMATIC TRUCE MOVE AS KOREAN BATTLE RAGES

시드니 모닝 헤럴드
The Sydney Morning Herald

DRAMATIC TRUCE MOVE AS KOREAN BATTLE RAGES

In the very midst of the biggest battle to be fought in Korea for two years, at a time when the renewal of full-scale warfare all along the front seemed a dangerous possibility, the truce negotiators, working quietly and patiently at Panmunjon, have apparently achieved their object. The Communists have agreed to sign the armistice, and have accepted U.N. assurances on the position of South Korea. The only question which still has to be settled is that of the entry into South Korea of Indian troops to police the P.O.W. camps; and, since General Harrison has bluntly indicated that the U.N. Command will stand no more nonsense from Seoul, this should present little difficulty.

This dramatic turn of events would be wholeheartedly acclaimed by the world were not reservations imposed by previous disappointments. More than a year ago nothing seemed to stand in the way of a cease-fire until unexpected difficulties arose over the repatriation of prisoners. Last month, these at length ironed out, signing of an armistice only waited on the final demarcation of the truce-line; but Dr. Rhee's deliberate act of sabotage precipitated further heavy fighting. Then, even when assurances of conformity had been extracted from Dr. Rhee, the Communists refused to accept their validity, and launched yet heavier assaults.

But now at last, after three bitter years, it seems that the fighting is really to end in Korea. Recently renewed fears that the Communists were seeking ways to avoid a cease-fire must be dispelled by the concessions they have shown themselves ready to make. In face of the sharp provocation offered by Dr. Rhee, the natural distrust of his future intentions it has aroused, and the fact that his troops man nearly three-quarters of the battlefront, the Communists' willingness to accept U.N. guarantees and to refer the matter of the released prisoners to the political conference is a solid assurance of their sincere desire for a truce.

The United Nations, for its part, has shown marked restraint and forbearance in view of the scale of the offensives launched by the Communists in the past month, which have cost the lives of many Allied as well as South Korean soldiers. The view has evidently been taken that the Communist intention was only to bring Dr. Rhee to his senses and reduce his power to make mischief. But now that there no longer seems any impediment to an armistice, this brutal and senseless slaughter should be halted immediately, not prolonged until after the formal signing.

호주의 대표적 유력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1953년 7월 20일자 신문을 통해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 신문은 “전면전으로의 재확산의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판문점에서 유엔과 공산주의자들 간에 침착하고 인내력 있는 휴전 협상이 진행됐고, 남측의 군사분계선에 대한 유엔 측의 확약을 공산주의자들이 수용했다”고 전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휴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고, 최근 1년 동안에도 휴전 협정 합의까지 숱한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는 점을 비교적 소상히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특히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하고 있고, 반공포로를 독자적으로 전면 석방하면서 휴전협정 체결이 어려워졌던 것이라고 간략히 배경 설명을 했다.

실제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방위조약 체결 전에는 휴전할 수 없고, 반공 애국 동포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6월 18일 0시에 영천, 대구, 논산, 마산, 부산, 거제도 등 7개의 포로 수용소에 있던 반공포로 3만 7천여 명을 한꺼번에 석방시킨 바 있다.

나아가 한국 측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휴전 교섭 파기를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던 것.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고, 북한 측에서는 포로들을 재수용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경제원조, 한국군 증강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힘겹게 휴전동의를 얻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이 신문은 “당시 현지 상황을 고려할 때 유엔 측은 공산군 측의 전면적 반격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했고, 동시에 북측이 이승만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 크게 반발한 점을 유엔이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론적으로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잔혹하고 의미없는 살육전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이제는 휴전협정 체결의 장애가 모두 제거됐다”고 보도했다.

1953년 7월 27일, 월요일

Monday, July 27, 1953

현실로 다가온 한국전쟁 휴전

CEASE-FIRE IN KOREA TO BE REALITY AT LAST

시드니 모닝 헤럴드

The Sydney Morning Herald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7월 27일자 '한국의 정전, 마침내 현실로' 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오늘 오전 정전협정이 체결될 것이라는 유엔 총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 장군의 발표는 오래 지속돼 온 불확실성과 좌절에 행복한 기대감을 안겨준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200만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재앙적인 한반도의 군사충돌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면서 "3년 동안에 걸쳐 발생한 막대한 인명피해와 고통을 야기시킨 총성은 당장 오늘 밤부터 서울에서 멈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전일 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면서 "전쟁 당사자의 한 편인 공산주의자들은 평화 협정을 거부하면서 적대적 행위의 기회를 모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공산주의자들은 결국 정전협정 조약에 남한을 구속하는 조항을 고집했다"면서 "북한이 향후 남한에 대한 적대적 기회를 노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유엔의 최우선 책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 The Sydney Morning Herald.

MONDAY, JULY 27, 1953

CEASE-FIRE IN KOREA TO BE REALITY AT LAST

There will be relief and thanksgiving throughout the world that the clash of arms in Korea, with its ever-present threat of a wider catastrophe and its fearful toll of two million casualties, is really to end at last. General Mark Clark's announcement that the armistice agreement will be signed this morning happily resolves the long period of uncertainty and disappointments. To-night, after three years of death and suffering, the guns will be silent in Korea.

Yet satisfaction must be shadowed by the knowledge that this will bring only an armed truce, not a peace, and that one of the major parties to the conflict is flatly opposed to it, and awaits a favourable opportunity to resume hostilities. It must be the first responsibility of the United Nations to see that no such opportunity is created, and that the terms of the armistice are made binding on the South Koreans. Nor can the avowed intention of President Rhee to put his own arbitrary time limit on the peace conference be tolerated by those Powers to whose sacrifices he owes his country's very existence.

The atmosphere of bitterness and mistrust in which the cease-fire has unhappily to be signed is shown by the savage fighting which has continued even after the truce-line has been demarcated and its last conceivable military purpose has vanished. No doubt the unrelenting Communist assaults have the propagandist aim of demonstrating Peking's continuing "will to fight," but this ghastly waste of human life is a discouraging prelude to an armistice.

Indeed, it is not surprising that in American official circles the prospect of an armistice seems to have aroused more foreboding than jubilation—not because America is anything but anxious for a cease-fire, but because of the complex of problems it will bring in its train. For the truce itself will settle nothing. It is not the laying aside of arms at the suit of a vanquished enemy. It will leave two great undefeated armies facing one another across a still divided Korea.

The unification of Korea, which is the avowed aim of the United Nations—just as, from a different viewpoint, it was the aim of the North Korean invaders in 1950—has not been settled on the battlefield, and the prospect of any more conclusive result being achieved by debate seems remote. Against the probability of failure, South Korea is defiantly proceeding with total mobilisation, and plans to create a militia of three million. The United Nations will need great firmness and skill if the armistice is to be anything but an interlude in war.

Now, moreover, there has to be answered a very difficult question which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has so far sidestepped: whether the Truman concept of a peace conference strictly limited to Korean matters is to prevail, or whether the opportunity to try for a general Far Eastern settlement is to be seized. It is evident that Mr. Eisenhower and Mr. Dulles incline to the latter approach. Congress's flat refusal to countenance the recognition of the Peking Government must, however, be seen as a serious obstacle to a realistic discussion of Asian problems.

The Sydney Morning Herald,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ISSN: 03126315 ▶

1953년 7월 27일, 월요일

Monday, July 27, 1953

정전 소식에 환호하는 참전용사들

TROOPS WERE HAPPY WITH TRUCE NEWS

더 선

The Sun

정전협정 당일 7월 27일을 전후해 호주 주요 언론 매체에는 일제히 서울발 호주연합뉴스(AAP)의 정전협정 소식이 다뤄졌다.

서울 현지에 파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AAP 기자는 "기자가 어제 밤 영연방 합동부대 소속 군인들에게 '내일 아침 정전협정이 체결될 것' 이라고 언급하자, 이들은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우리도 전해 들었다' 며 환호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자는 또 "호주 참전용사들도 미군 라디오를 통해 정전협정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역을 6주 앞둔 NSW주 뉴카슬의 램브턴 동네 출신의 조지 프리스크 병장은 AAP를 통해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돼 너무도 기쁘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6주가 아니라 6시간이든 6개월이든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공포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프리스크 병장은 AAP 기자와의 대화에서 "유엔이 해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AAP는 정전협정 소식에 즈음한 UN 군인들의 반응을 전하는 한편 정전협정에 명시된 합의 사항들을 상세히 전하기도 했다.

TROOPS WERE HAPPY WITH TRUCE NEWS

Australian Associated Press

SEOUL, Monday. — "We've heard that before", said unbelieving men of the British Commonwealth division when correspondents told them yesterday that the truce would be signed today and all fighting end twelve hours later.

News of the armistice was passed on from units which received it by telephone and from despatch riders.

Drivers stopped groups of soldiers by the roadside and called out the good news.

By radio

Some troops heard the report by radio from American armed forces stations.

The Commonwealth Division radio does not start broadcasting until evening so many troops did not have their radios turned on.

Men of Australia's 77 fighter squadron greeted the news with whoops of joy.

Sergeant George Prisk, of Lambton, NSW, said, "I am glad it's over. When I go back I have six weeks to go to finish my time.

"Six hours, six weeks or six months is enough time to get killed in. I think the United Nations has done the job it set out to do."

1953년 7월 28일, 화요일
Tuesday, July 28, 1953

더 선: 정전협정은 자유세계의 단합된 의지의 기념비

THE MEANING BEHIND KOREAN WAR

더 선
The Sun

"Monument to the united wil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free world"

1910년 창간돼 1954년까지 패어팩스 그룹이 발간했던 당시 시드니의 대표적 석간신문 '더 선' 은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다음날 사설을 통해 "3년 동안의 한국전쟁으로 엄청난 피해와 희생이 뒤따랐지만, 유엔이 주도한 정전협정은 자유세계의 단합된 의지의 기념비가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진정한 승리를 통해 미래의 침략국에게 강력한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유엔외교관들의 평가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동의한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특히 "정전협정을 통해 유엔의 한국전쟁 개입은 잘못이었다거나 유엔의 무용론을 제기한 주장들은 모두 잘못됐음이 반증됐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유엔이 주도한 정전협정은 자유세계의 희망과 이상의 단합체라고 평가했다.

즉, 비록 공산침략으로 한국은 막대한 피해와 희생을 겪었지만 정전협정을 통해 유엔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자유세계의 방향등을 제시한 것으로 이 신문은 평가했다.

더 선은 또 부산의 유엔군 묘지도 언급하며 "모든 호주인들에게 부산 유엔군 묘지 방문은 더없이 소중한 산교육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ditorial

THE MEANING BEHIND KOREAN WAR

Most people will endorse the opinion of United Nations diplomats that the "major victory" of the Korean truce will serve as an active discouragement to would-be aggressors of the future.

This view is a healthy corrective to suggestions that the Korean war was a mistake or that the United Nations Organisation has proved useless.

An even more powerful answer would be given by a visit to the United Nations cemetery at Pusan, where the bodies rest of thousands of men of different nationalities who have laid down their lives for a common ideal.

To any Australian, such a visit must bring a close and moving lesson, for next to our own dead lie those of our former enemies, the Turks.

There could be no deeper symbol of the unity of the free world's hopes and ideals.

The Sun believes that the United Nations' intervention in Korea a little more than three years ago will be recorded in history as a wise and statesman-like decision.

Such an action declared with all the emphasis of arms that henceforward communist aggression would be halted wherever it broke out.

It was a signal of hope to those nations in Asia and elsewhere which feared that their turn would be next.

It is true that the organisation of the United Nations has been used by Russia as a political propaganda weapon, and that on occasions it has been disturbed by a conflict of views among the representatives of the free world.

But far more often it has served as a rallying point for the ideals of freedom and as a forum where the world's problems may be determined by the use of reason instead of force.

Undoubtedly the organisation has its weaknesses, but it has an underlying strength as well, and it remains the outstanding instrument in the world today by which the hopes of mankind for a better and freer world may be upheld.

At the end of three years of bitter sacrifice and suffering, Korea stands as a monument to the united wil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free world.

1953년 7월 28일, 화요일
Tuesday, July 28, 1953

한국전쟁 희생, 헛되지 않았다

SACRIFICES IN KOREA HAVE NOT BEEN IN VAIN

시드니 모닝 헤럴드
The Sydney Morning Hera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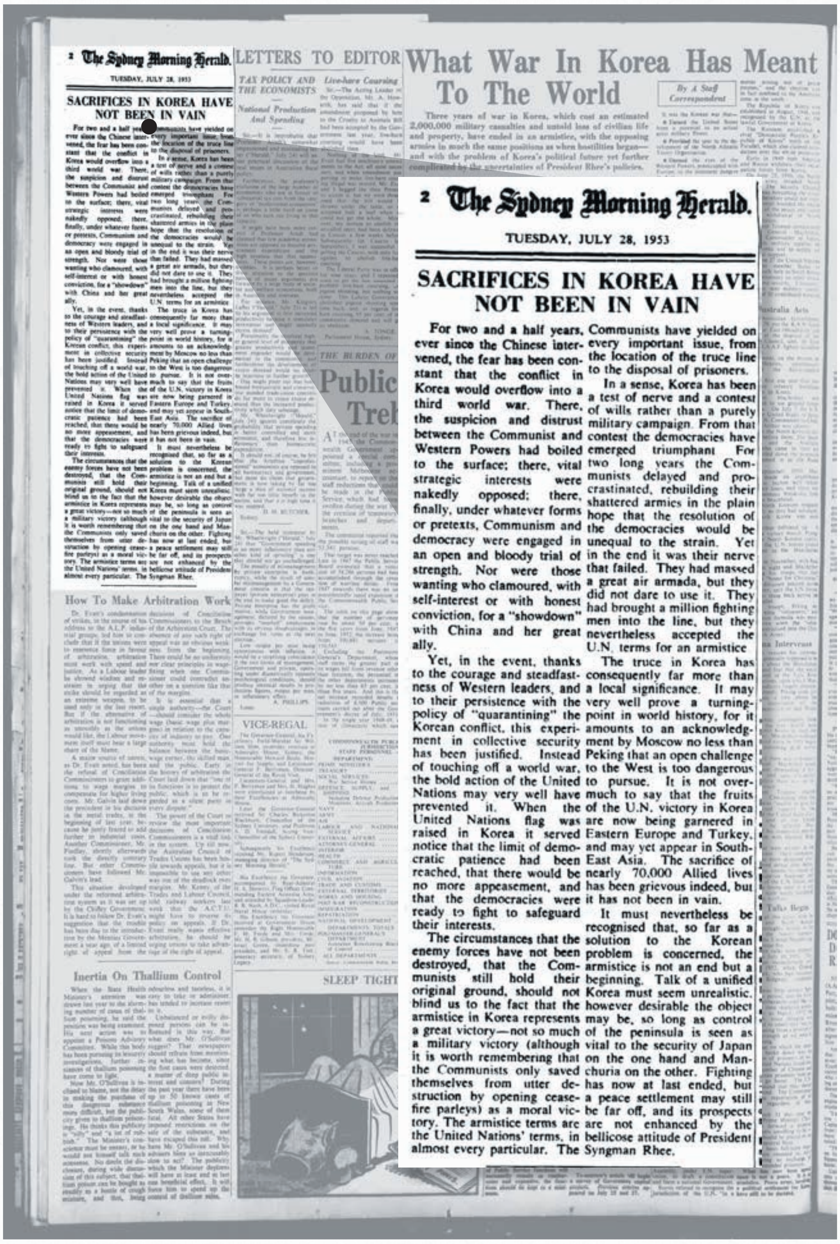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날 7월 28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한국전쟁의 희생, 헛되지 않았다' 라는 제하의 시론을 통해 정전협정의 의미를 심도 있게 거듭 분석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무력개입 이후 남북한 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공산주의자들과 서방 세계 간의 의혹과 불신이 한층 고조된 상태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벌어진 공개적 유혈 충돌이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최우방국 중국의 개입은 재앙적 사태를 초래할 뻔했지만 용기있고 견고한 서방 지도자들의 결단에 힘입어 유엔의 시험적 집단안보체제의 성공과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정전협정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유엔 측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많은 양보로 이끌어내는 등 정전협정은 유엔의 승리이다"면서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문제를 벗어나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모스크바와 베이징 측에도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동부유럽, 터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공산권에도 많은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런 점에서 "한국전쟁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귀결했다.



2 The Sydney Morning Herald.

TUESDAY, JULY 28, 1953

SACRIFICES IN KOREA HAVE NOT BEEN IN VAIN

For two and a half years, ever since the Chinese intervened, the fear has been constant that the conflict in Korea would overflow into a third world war. There, the suspicion and distrust between the Communist and Western Powers had boiled to the surface; there, vital strategic interests were nakedly opposed; there, finally, under whatever forms or pretexts, Communism and democracy were engaged in an open and bloody trial of strength. Nor were those wanting who clamoured, with self-interest or with honest conviction, for a "showdown" with China and her great ally.

Yet, in the event, thanks to the courage and steadfastness of Western leaders, and to their persistence with the policy of "quarantining" the Korean conflict, this experiment in collective security has been justified. Instead of touching off a world war, the bold action of the United Nations may very well have prevented it. When the United Nations flag was raised in Korea it served notice that the limit of democratic patience had been reached, that there would be no more appeasement, and that the democracies were ready to fight to safeguard their interests.

The circumstances that the enemy forces have not been destroyed, that the Communists still hold their original ground, should not blind us to the fact that the armistice in Korea represents a great victory—not so much a military victory (although it is worth remembering that the Communists only saved themselves from utter destruction by opening cease-fire parleys) as a moral victory. The armistice terms are the United Nations' terms, in almost every particular. The Communists have yielded on every important issue, from the location of the truce line to the disposal of prisoners.

In a sense, Korea has been a test of nerve and a contest of wills rather than a purely military campaign. From that contest the democracies have emerged triumphant. For two long years the Communists delayed and procrastinated, rebuilding their shattered armies in the plain hope that the resolution of the democracies would be unequal to the strain. Yet in the end it was their nerve that failed. They had massed a great air armada, but they did not dare to use it. They had brought a million fighting men into the line, but they nevertheless accepted the U.N. terms for an armistice.

The truce in Korea has consequently far more than a local significance. It may very well prove a turning-point in world history, for it amounts to an acknowledgment by Moscow no less than Peking that an open challenge to the West is too dangerous to pursue. It is not overmuch to say that the fruits of the U.N. victory in Korea are now being garnered in Eastern Europe and Turkey, and may yet appear in South-East Asia. The sacrifice of nearly 70,000 Allied lives has been grievous indeed, but it has not been in vain.

It must nevertheless be recognised that, so far as a solution to the Korean problem is concerned, the armistice is not an end but a beginning. Talk of a unified Korea must seem unrealistic, however desirable the object may be, so long as control of the peninsula is seen as vital to the security of Japan on the one hand and Manchuria on the other. Fighting has now at last ended, but a peace settlement may still be far off, and its prospects are not enhanced by the bellicose attitude of President Syngman Rhee.

1953년 7월 30일, 목요일
Thursday, July 30, 1953

호주, 한반도 평화회의 (제네바 회담)에 참여해야

Australian role in Korean talks

더 선
The Sun

더 선은 1953년 7월 30일 자 신문에서, 예정된 한반도 평화회의(제네바 회담)에 "반드시 호주도 참여해야 한다"는 영국 정부의 입장을 부각시켰다.

이 신문은 영국 외무장관 권한대행의 이 같은 발언 내용을 상세히 전하면서 '한반도의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을 논의할 국제회의에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 부각시켰다.

이 신문은 "영국 외무장관 권한대행이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상에 참여할 경우, 호주는 물론 인도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두 나라 모두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대해 각별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두 공산주의 국가가 한반도 평화회의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 시각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신문은 또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ustralian role in Korean talks

Australian Associated Press

LONDON, Thursday.—Australia and India should be represented at the coming political conference to decide the future of Korea "because they have special responsibilities in the armistice".

Britain's Acting Foreign Minister Lord Salisbury said this in the Lords last night and he also included Communist China and Russia as entitled to seats because they had common frontiers with Korea.

India had no troops in the war but will send 5000 to guard prisoners unwilling to return home.

Lord Salisbury said a settlement must be reached at the conference based on realities of the Far Eastern situation and which would not have the effect of upsetting the balance there.

[A United Nations meeting on August 17 is expected to determine the form of this conference.]

China and UNO

Lord Salisbury said, "If the political conference makes real progress toward settlement of the Korean problem, there is no reason why it should not move on to consider other outstanding problems in the Far East.

"There is only one basis for a permanent settlement of the Korean problem.

"That is unification of the whole of Korea by peaceful means."

All this could not be accomplished at once.

In this they must be realists.

On China's admission to UNO, he said the recent Washington conference (Britain, France and US) agreed it would be impracticable that there should be any immediate or automatic change of policy toward China as a result of an armistice.

They agreed that the question could come up again for examination in the light of events following the armistice.

Policy change?

They could raise this again whenever they thought the occasion appropriate.

"None of us knows," Lord Salisbury said, "whether this agreed Korean solution may not lead to a change of policy by Russia and China toward the Far East.

"If this should happen it would, no doubt, open the door to a new understanding between the communist and non-communist world."

It might be asked what would happen if the armistice were broken by the sudden action of President Syngman Rhee (South Korea).

A very grave situation would then arise, but they all hoped it would never occur.

In the Commons a storm developed over Labor demands to know what line Britain would take on Red China and UNO.

Acting - Prime Minister Butler said this should be decided during or after the political conference.

American journalists reporting from Tokio see President Rhee as "dooming to failure" the coming peace conference.

This conclusion is reached by a study of the terms he is trying to impose on US for unifying his country.

US State Secretary Dulles flies to Korea on Sunday to see Rhee and he is expected to face tough work trying to achieve a common front with him.

A United Press correspondent quotes diplomatic sources as saying Rhee's present terms for unification of Korea and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will be totally unacceptable to the communists

1953년 7월 30일, 목요일
Thursday, July 30, 1953

휴전, 평화의 승리… 아이젠하워드 대통령의 결단력

Thank this man for peace

디 아거스
The Argus

1846년 창간돼 1957년까지 멜버른의 대표적 일간지였던 디 아거스(The Argus)는 7월 30일자 보도를 통해 “전 세계의 보편적 시민들은 한국의 정전 소식을 일제히 환영한다”면서 “정전협정 체결은 평화의 승리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세계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력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면서 “조직적이고 단호한 반대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이뤄진 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결단력 덕분이다”라고 강조했다.

디 아거스는 “우리 측 견해에 따라 적대국을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경우 유엔 회원국들에게 정전협정은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정전협정의 불완전한 점도 지적하면서 “특히 미국 내의 일부 세력들은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침략에 맞선 유엔의 방어로 보지 않고 미국과,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으로 축소해석하면서 이로 인해 오히려 적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런 맥락에서 디 아거스는 “미국은 향후 평화 교섭 과정에 단일 교전국의 입장이 아닌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 싸운 모든 참전국 역할을 하는 유엔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The Argus
THURSDAY, JULY 30, 1953.

Thank this man for peace

COMMON men, the world over, have welcomed the Cease Fire in Korea as the best kind of victory, a victory for peace.

As they learn more of the political scene in the U.S.A. they will recognise how much their gratitude is due to PRESIDENT EISENHOWER for his wise and resolute statesmanship against bitter and organised opposition.

To the other nations of the U.N., the armistice appeared as settled policy to be carried through, provided the enemy could be persuaded to our opinion.

But it is clear that this breathing space in the costly and indecisive bargaining of war has been won only on restricted terms and by the PRESIDENT'S own determination.

There is a strong and vociferous body of opinion in America today which regards the Korean war not as a form of police action carried out by the U.N. for the discouragement of aggression, but as a private war between America and the Asian Communists with spoils to the winner.

This opinion takes little interest in the path towards peace chosen by the U.N.; indeed it takes little interest in the feelings of its own front-line troops or its own prisoners of war, lying in enemy hands.

And it takes even less interest in the "token" forces contributed by Britain, Australia, and other U.N. powers as a pledge of their readiness to resist the force of arms wherever it is unjustly applied in the world.

This attitude towards the Korean war cannot be dismissed as the ravings of the lunatic fringe. It contains a distinct threat of a renewal of fighting in 90 days, and an unlimited extension of the Korean bloodbath.

There seems little doubt that PRESIDENT RHEE'S instransigence has been kept alive by the knowledge that it has strong support in Congress, and in fairness it must be admitted that his dreams of glory were encouraged by GENERAL MACARTHUR when he commanded U.N. forces.

Now the sabre-rattling section of American politicians will be faced by the harshest of all tests. The U.S.A. will be asked to handle peace negotiations, not as a single belligerent but as a member of the U.N which threw its mantle over all the forces fighting to protect South Korea.

If the war party gains control we may be sure that they will find plenty of imitators here. But the U.N. can only survive as a world police force if it stands for peace, if it is ready to fight for this as a principle and stop fighting as soon as it has secured it.

Peace is not something to be enforced by one nation; it is the goal of mankind, and it can only be won by agreement between all nations.

1953년 8월 01일, 토요일
Saturday, August 01, 1953

1953년 8월 2일 일요일: 호주 전역의 교회들 한국전쟁 휴전 감사 예배

THE CHURCHES Plans For Korean Truce Services

시드니 모닝 헤럴드
The Sydney Morning Herald

호주의 제13대 연방총리를 역임한 아서 패이든은 1953년 8월 1일, 당시 연방총리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호주 내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문을 보내 “8월 2일 주일에 한국전쟁 휴전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8월 1일자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아서 패이든 연방총리 권한대행의 협조요청에 호주 앵글리칸교단, 장로교단, 감리교단 등을 비롯 대부분의 교단이 한국을 위한 특별 기도에 적극 호응했다.

시드니의 경우 웨슬리 교회에서 합동 기도회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교회는 1919년 독립운동을 전후한 한국의 독립운동에도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한 바 있음이 당시 호주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THE CHURCHES

Plans For Korean Truce Services

The Acting Prime Minister, Sir Arthur Fadden, has sent urgent telegrams to the heads of all Australian churches asking them to hold special services of prayer and thanksgiving for the Korean truce in churches under their jurisdiction to-morrow.

The Archbishop of Sydney, Dr. H. W. K. Mowll, has sent circular letters to all his clergy asking them to offer appropriate prayers, and has authorised for use in all Anglican churches of the diocese biddings specially prepared for the occasion, together with suitable Lessons, Psalms and Prayers.

“정전협정, 이념적 잣대가 아닌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스튜어트 메이어 전 제독
Stuart Campbell Mayer

1984년 호주해군 소위 임관
호주 해군 미사일 호위함장
호주 해군 전략사령부 참모장
이라크 다국적군 특임단장
유엔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사령관
호주 해군 작전사령관
해군 중장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그렇다면 호주 해군중장으로 유엔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스튜어트 메이어 전 제독은 정전협정을 어떻게 바라볼까?

스튜어트 메이어 전 유엔사 부사령관은 “정전협정의 목적은 항구적 평화에 대한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정치적 공간을 마련한 것이고 그 대화의 공간을 유엔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1953년 예상대로 “1954년 제네바 회담은 결국 실패했지만, 정전협정이 매우 효과적이고 주효했음은 70년의 역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강조한다.

스튜어트 메이어 전 유엔사 부사령관은 “정전협정은 현재적 시점의 이념적 관점이 아닌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그는 “세계는 항상 생각의 차이, 즉 사상의 차이에 대해 경쟁을 펼쳤고, 이를 통해 각각의 사상을 더욱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왔지만, 이념적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피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스튜어트 메이어 전 유엔사 부사령관은 “지난 70년 동안 번창시켜온 규칙에 기반한 질서는 한층 위험에 처해졌고,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평화 역시 위기에 빠진만큼 현재의 이념적 경쟁이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현존하는 메커니즘이 안정된 환경을 되돌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면서 정전협정 유지의 당위성을 강변한다.

즉, 항구적 평화협정에 대한 협상의 공간이 바로 정전협정 체제라는 설명이다.

해외 민주평통은 기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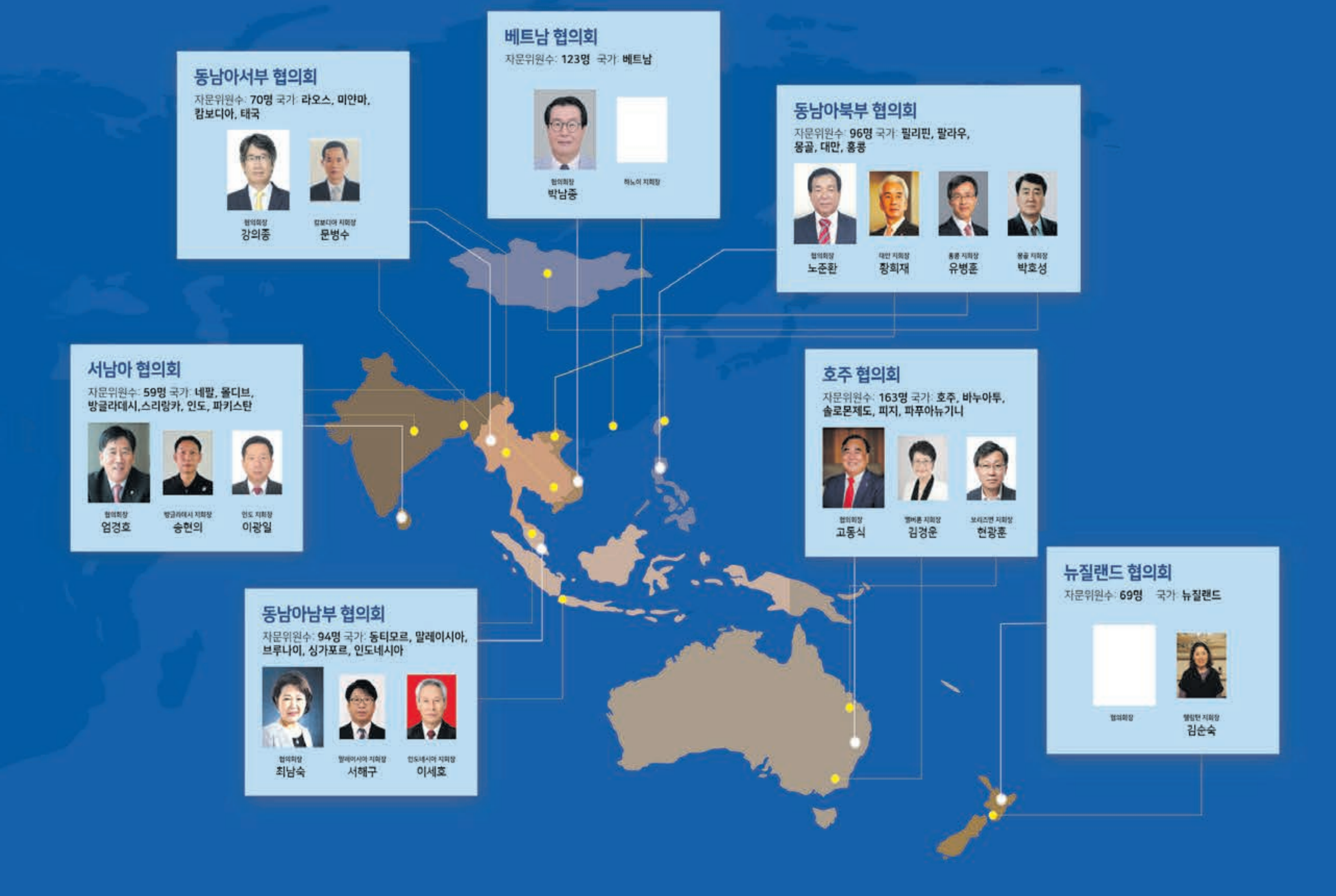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제20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부의장
이숙진

간 사
주양종

· 기획분과위원장 **이희룡 위원**
· 여성분과위원장 **연진희 위원**
· 청년분과위원장 **김규범 위원**

▶ 협의회 및 소속 국가 ◀



동남아서부 협의회
자문위원수: **70명** 국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협의회장 강의종
캄보디아 지회장 문병수

베트남 협의회
자문위원수: **123명** 국가: **베트남**

협의회장 박남종
하노이 지회장

동남아북부 협의회
자문위원수: **96명** 국가: **필리핀, 팔라우, 몽골, 대만, 홍콩**

협의회장 노준환
대만 지회장 황희재
홍콩 지회장 유병훈
몽골 지회장 박호성

서남아 협의회
자문위원수: **59명** 국가: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협의회장 엄경호
방글라데시 지회장 송현의
인도 지회장 이광일

호주 협의회
자문위원수: **163명** 국가: **호주,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피지, 파푸아뉴기니**

협의회장 고동식
멜버른 지회장 김경운
브리즈번 지회장 현광훈

뉴질랜드 협의회
자문위원수: **69명** 국가: **뉴질랜드**

협의회장
웰링턴 지회장 김순숙

동남아남부 협의회
자문위원수: **94명** 국가: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협의회장 최남숙
말레이시아 지회장 서해구
인도네시아 지회장 이세호